

186장 영화로신 주 성령

- 1 영화로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 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 2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맘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 3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롬 없애고 기쁜 맘을 주소서
- 4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을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 1 네 맘과 정성을 다 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 2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 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맘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 3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1월 22일(수) 기도 담당 : 나정기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정평진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186장 다함께
기도	해성광 집사
성경봉독	신명기 10:12~22 인도자
찬양	새벽찬양대
설교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상학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함께
찬송	218장 다함께
축도	설교자

<신명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일	본문	제목
1월 21일(화)	신 10:12-22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1월 22일(수)	신 11:8-17, 21-23	세상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는 길
1월 23일(목)	신 12:1-7, 29-32	참된 예배자가 되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1월 21일(화)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밤사이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셔서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명하신 율법을 우리 삶의 명예인줄로만 생각하였으나, 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허락하신 율타리임을 깨닫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셨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새문안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붙들어주셔서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모든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완수하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새문안교회가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의 다음세대를 기억하여주셔서 교육부 교회학교와 대학·청년부를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며, 특히 청년세대가 직면한 취업과 이직, 연애와 결혼문제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진로와 비전을 놓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불안하고 위태로운 시국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주시고, 이 나라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무지한 세력들이 더 이상 위기를 조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세우신 질서를 흔드는 악하고 가증한 세력들로부터 우리의 다음세대와 조국의 미래를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처에 흩어져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기 원합니다. 해외 유학생들과 군복무 중인 자녀들, 지방에서 생활하는 모든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